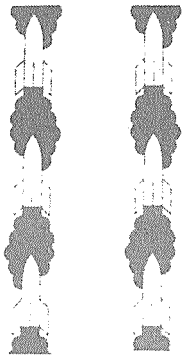


- 9. 1 : 商工部, 亞鉛鍍鋼板의 수출을 완전 自由化하고 울 하반기중 강판의 수출추천 허용량을 48만톤으로 확대키로.
- 9. 6 : 企劃院, 光케이블과 전자교환기 제조업체에 대한 外國人투자 제한을 폐지하고 반도체칩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.
- 9. 9 : 科技處, 전국 주요지역에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이들 단기간을 교통망, 통신망 등으로 상호 연결하는 技術地帶網(테크네벨트)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.
- 9. 16 : 科技處,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화, 자동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, 이들의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국책연구사업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한 「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전략」을 마련키로.
- 9. 21 : 商工部, CNC 기어 연삭장치 등 기계·부품소재 232개 품목을 '89년도 2차 개발대상으로 선정 고시키로.
- 9. 22 : 遞信部, '90년도 하반기중에 워키토키, 차량전화기를 비롯한 민간에서 사용하는 무선장비(무선국)를 종합관리할 韓國電波管理公團을 설치키로.
- 9. 22 : 日本히타치社, 현재 세계반도체 메모리의 주종상품인 D램이 세계적인 수급완화, 가격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적시 차세대 반도체인 비디오램(V램)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.
- 9. 26 : 商工部, 중국·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가능한한 확대해 나아가되 대규모 투자 및 건설진출 등은 정치적 관계개선에 따라 추진속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.
- 9. 27 : 科技院, 적외선감시 소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BN (스트

## 電子工業日誌



(1989. 9. 1 ~ 10. 31)

론톱-바롬-니오브)계 세라믹스 재료가 개발됐다고.

- 9. 28 : 工振廳, 중소기업이 국가가 갖고 있는 고가의 시험연구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,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시험 연구설비 전산망을 구축키로.
- 10. 4 : 通信公, 통신망 이용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통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90년 하반기부터 ONA (開放型 통신망)을 단계적으로 도입 실용화하기로.
- 10. 5 : 科技處,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이 정보화사회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동生産공장을 구축, 국가 대형연구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키로.
- 10. 6 : 質協, 「NICS 4 개국 무역

동향」에 따르면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'88년 같은 기간보다 46억 1,500만 달러나 감소, 3억 4,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.

- 10. 7~12 : 本會, KOEX에서 제20회 韓國電子展覽會 개최.
- 10. 12 : 通信公,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위해 전국 주요도시에 정보센터를 구축, 私設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적극 육성키로.
- 10. 14 : 通信公, 팩스밀리·퍼스컴을 비롯한 비음성 서비스 확대와 관련 '91년까지 모두 445억원을 투입, 전국에 데이터 전용망을 설치, '92년부터 본격 서비스하기로.
- 10. 17 : 科技處, 2000년대초까지 원자력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전략을 마련, 綜合설계 능력 확보 등을 목표로 中·長期전략을 구축키로.
- 10. 17 : 通信公, '90년부터 공중전화망·텔렉스망 등 서로 다른 통신망간의 상호연동 서비스를 실용화하기로.
- 10. 18 : 工振廳, 개인용컴퓨터(PC)의 不要電磁波(EMI)에 대한 KS(KSC 5844) 기준이 제정됐다고.
- 10. 24 : EC, EC 집행위가 한국 제조업체들이 EC에 수출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反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키로.
- 10. 24 : 科技院,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, 광범위하고 정밀한 정보를 수립 활동하기 위한 원격탐사기술 개발을 추진키로.
- 10. 27 : 科技處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이 과거 단독운영에서 범부처적 공동 운영체제로 전환키로.
- 10. 31 : 科技處, 국내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탁월성 집단을 구성하여 우수연구집단으로 집중 지원키로 하고 2001년까지 100개 대학을 선정키로.